

문학적 표상으로서의 <섬>*

- 일본근·현대문학 속의 '제주도' -

소 명 선**

1. 들어가며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과 아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거점이 되는 <섬> 제주는 고래부터 그 지정학적 특성에 의해 독특한 문화체계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제주도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계가 주목해왔으며, 신화연구에서 시작하여 언어, 사회, 지리,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화산섬 제주의 자연과 지리 및 민속학적 관심이 높으며 지역사회분야에서는 재일외국인, 그 중에서도 오사카의 이쿠노를 중심으로 하는 제주출신자들의 집단거주 지역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이는 재일한인이라는 마이너리티 내에서도 제주출신은 독일의 계기와 경로가 상이하며, 독특한 에스니시티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중심이 될 문학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재일한인작가들이 일본문단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학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김석범의 문학활동은 제주도라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고증시켰다. 김석범은 1957년 「간수박서방」과 「까마귀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화산도』라는 대 장편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4.3사건을 주요 테마로 해 온 작가다. 따라서 제주도와 4.3사건은 언제나 연결된 형태로 제주도의 이미지 형성을 주도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의 재일문학 연구자에게도, 일본인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32-A00217).

**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연구자에게도 제주도라는 <섬>은 4.3사건을 둘러싼 역사적인 측면이 연구의 중심축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문학 전반에 걸친 제주<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초래된 결과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근·현대문학의 텍스트 공간으로서의 ‘제주도’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목표로 한다. 일본근·현대문학은 제주도라는 <섬>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연구영역은 제주<섬>을 어떻게 대상화하고 형상화해 왔는가. 대상화 과정에 있어 어떠한 知의 권력성이 발휘 되어졌는가. 제주<섬>의 이미지에선 변용이 있는가. 변용이 있다면 그 요소는 어떤 것이고, 근원적으로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등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 제주<섬>에 대한 시각을 일본의 근·현대문학 속에서 찾는 것은, 일본열도라는 <섬>에서 한반도의 변방지역, 제주<섬>을 바라보는 시각을 규명하는 것이 될 것이며, 또한 제주<섬>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적 탐구를 통해, 일본의 근·현대문학을 逆照射해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¹⁾

2. 일본열도가 바라 본 ‘제주도’

윤석산은 섬이나 바다를 다룬 작품을 살펴보았을 때, 섬 내부의 목소리와 육지부의 목소리가 서로 다르다고 말한다. 가령 섬사람은 바다나 섬을 ‘생활의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데 반해 내륙인들은 ‘관념적 공간’ 혹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나 상황’, ‘玩賞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이러한 시선이 지배적인 작품에서는 바다나 섬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 내지는 예는 드물다고 한다. 그리고 섬사람들이 ‘생활의 공간’을 주관적 정서로 운색하는 것은 “외부와 차단된 환경으로 인하여 누구나 바다의

1)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제주도를 표상하고 있는 일본의 근·현대문학텍스트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 발견되고 있어 시대와 장르를 구분해서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수집해 온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기 위해 크게 일본인과 재일제주인이라는 두 가지 틀로 나누어 고찰한다. 일본인 작가의 경우에는 시대별로 제시기로 나누어 검토한다. 재일제주인은 세대별, 성별 구분 없이 제주도에 대한 형상화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육지의 어느 지방의 주민들보다 상호간에 밀접성이 높다는 생태사회학적인 환경”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²⁾ 이처럼 육지부에서 형상화하는 <섬>과 섬에서 형상화하는 <섬>이 상이하다고 한다면, 제주가 아닌 다른 섬에서 바라보는 제주<섬>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본 장에서는 일본이라는 섬에서 바라보는 제주에 대한 시각이, 문학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는 제주도 표상 작가 및 작품이다.

[표1] 일본인 작가에 의한 제주도 표상 작품

작품명	발표연도	저자	초출 및 수록 단행본	분류
『제주도기행(濟州島紀行)』	1906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	『博物之友』6卷30-2号 1906	기행문
『제주도의 자연과 풍물(濟州島の自然と風物)』	1935	츠루다 고로(鶴田五郎)	中央朝鮮協會 1935.5	기행문
『제주도기행(濟州島紀行)』	1941	스기야마 모토지로(杉山元治郎)	『政界往来』1941.9	기행문
『제주도(濟州島)』	1980	호시노 사다하루(星野貞治)	『濟州島』檸檬社 1980.12	소설
『제주도엘레지(濟州島エレジィ)』	1984	이쿠시마 지로(生島治郎)	『世界』1984.6(463号)	에세이
『유랑연예인(旅芸人)』	1985	기리시마 가사네(桐山襲)	『文芸』1985.4	소설
『탐라기행(耽羅紀行)』	1986	시마 료타로(司馬遼太郎)	朝日新聞社 1986.11	기행문
『한국제주도(韓國濟州島)』	1988	마스모토 노부코(升本順子)	『女たちのシルクロード』蒼洋社 1988.1	에세이
『제주도의 금기와 주문(濟州島のタブーと呪文)』	1990	야마시타 야스노리(山下靖典)	『濟州島』3号 1990.6	에세이
『제주여행(濟州の旅)』	1990	야마다 오사무(山田収)	『濟州島』3号 1990.6	에세이
『파왕의 시기(波王の秋)』	1996	기타카와 겐조(北川謙三)	集英社 1996.9	소설
『“아버지”를 밟다(“アボジ”を踏む)』	1996	오다 마코토(小田実)	『群像』1996.10	소설

2) 윤석산 「'섬 문학'에 나타나는 공간구조와 의식의 지향성」 제주국제협회의회·제주시편 『바다와 섬, 문학과 인간』(오름 1999.8) pp.165~167

「제주도(濟州島)」	1996	노무라 스스무 (野村進)	『コリアン世界の旅』講談社 1996.12	논픽션
「화산도에 빗대어(火山島に寄せて)」	1997	오노 테지로 (小野梯次郎)	『新日本文学』1997.9	에세이
「제주도편(濟州島篇)」	1998	하기와라 료 (萩原遼)	『北朝鮮に消えた友と私の物語』文芸春秋 1998.11	논픽션
「일년 내내 좋은 향이 나는 나무열매를 찾아서-한국 제주도(非時の香の木の実を求めて-韓国・濟州島へ)」	2002	사사키 미키로 (佐々木幹郎)	『アジア海道紀行-海は都市である』みすず書房 2002.6	기행문
「쏟아지는 글자-제주도(こぼれる文字-濟州島)」	2003	기타가와 아케미 (北川朱実)	『人のかたち 鳥のかたち』思潮社 2003.10	시
『마지막 인연(最後の絆)』	2004	란 치요마루 (蘭千代丸)	今日の話題社 2004.10	소설
「제주도(濟州島)」	2006	요시오카 미노루 (吉岡実)	『吉岡実散文抄-詩神が住まう場所』思潮社 2006.3	에세이
『장미의 약탈 사랑의 서약(薔薇の略奪 愛の誓い)』	2006	마츠유키 가호 (松幸かほ)	心交社 2006.4	소설
『타국에서의 기적(他国での奇跡)』	2006	야마시타 세지로 (山下清次郎)	新風舎 2006.6	에세이
「제주도의 당(濟州島の堂)」	2006	오카야 코지 (岡谷公二)	『新潮』2006.12	에세이

2-1. 명치유신에서 식민지 지배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자발적인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서구의 근대화과정을 답습하듯 곧 아시아침략으로 나아가 조선을 전진기지로 대륙으로의 침략을 꾀했다. 강화도사건을 빌미로 이듬해인 1876년 한일수호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에 대해 개국을 요구한 일본은 개항지 부산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류지를 형성해 갔다. 특히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러일전쟁을 전후해서는 식민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조선지 지 혹은 여행기 등과는 달리 조선으로의 이주와 조선 경영을 위한 메뉴얼적 성격을 띠는 서적들이 다량으로 출판되었다.³⁾ 제주도에 관해서는 1

3) 岡庸一 『最新韓国事情 一名韓国經濟指針』(青木崇山堂 1903.10), 佐藤政次郎 『韓国成業策 一名・渡韓のしるべ』(岡島書店 1904.3), 山本庫太郎 『最新朝鮮移住案内』(民友社 1904.6), 加藤政之助 『韓国經營』(実業之日本社 1905.8), 徳永勲美 『韓国総覧』(博文館 1907.8), 青柳南冥(青柳綱太郎) 『韓国植民策 一名韓国植民案内』(輝文館 1908.3) 등이 그 예이다.

905년 아오야기 츠나타로(青柳綱太郎)가 같은 해 3월 「목포신보」에 게재된 「제주도경영」을 부록으로 첨가하여 『조선의 보고 제주도 안내(朝鮮の宝庫 濟州島案内)』⁴⁾(隆文館 1905.5)를 발행하고 있다.

이처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양산되는 조선관련 텍스트는 문명과 미개라는 시각에 기축한 아시아인식에 의해, 조선을 일본의 교육과 지도를 필요로 하는 야만국으로 치부하고 일본이 우위에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조선에 대한 마이너스 언설을 산출한다. 그리고 그러한 마이너스 이미지는 고정화되어 전파되어, 제주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어학자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다.⁵⁾

1905년7월15일 이치카와는 미국인 동물학자와 함께 동물 및 곤충류 채집을 위해 제주도로 향한다. 동경을 출발하여 나가사키를 거쳐 부산과 목포를 경유해서 이치카와 일행이 제주도에 도착하는 것은 8월9일이다. 당시 19살인 이치카와는 부산에서 6일간 체재하고 제주로 들어오는데 입도하기 전부터 당시 유포되고 있었던 조선 및 조선인, 그리고 제주도에 관한 마이너스 언설을 통해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특히 제주도는 내지보다도 더욱 미개하고 인정은 대단히 흉험하”⁶⁾고, 도민은 무지몽매하기 그지없어 섬의 중류층이라는 사람이 일본에도 달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곤혹스러웠다고 언급하고 있다.⁷⁾ 또한 ‘이재수의 난’과 잦은 민란 발생을 예로 들며 “투쟁을 좋아하고 살

4) 『조선의 보고 제주도 안내』에는 섬의 지리, 행정, 교통, 역사, 인종풍속, 기후, 경관 등의 개설과 함께 제주도의 산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도민의 재산과 생활수준, 가축 한 마리의 가격, 곡물의 종류별 가격에 이르기까지 현지 조사를 통한 식민지 제주도 안내 책자이다. 아오야기에 의하면 당시 제주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은 400명을 상회하나, 이는 대부분이 어업종사자이고, 상륙경영자는 32명(남: 23명, 여:9명)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세밀한 조사를 통해 저자인 아오야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가 누구의 소유이든 상관없이 ‘일본이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한 천지는 즉 일본인의 새로운 고향’(p.85)이라는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이다.

5) 이치카와가 제주도로 출발하기 전에 아오야기의 『조선의 보고 제주도 안내』를 읽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며, 실제 두 문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조선의 보고 제주도 안내』의 내용을 모방하고 있는 흔적이 다수 눈에 띈다. 이치카와 상키를 비롯한 명치기의 제주도 언설 및 아오야기와의 비교에 관해서는 줄고 『紀行文からみた明治日本の濟州島像』(『叙説Ⅲ』2号, 2008.2)에서 고찰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겠다.

6) 市河三喜 『濟州島紀行』(초출: 『博物之友』6卷30-2号 1906) 인용은 『昆虫・言葉・国民性』(研究社, 1939.9)에 의함. p.339

7) 市河三喜 上掲書, p.370

상을 기뻐하”⁸⁾는, 즉 폭동과 살상을 일삼는 미개인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봉화동 마을 사람 중에 안내할 자를 고용하려고 김(필자 역주:부산에서 통역인으로 고용한 조선인 김용수)이 그 교섭을 했더니 그들은 모두 나태태만하여 한 사람도 자진해서 그것에 응하는 자가 없다. 그들은 말하길 ‘이렇게 추운 데 산꼭대기로 가면 얼어죽는다.’ 오오 유타한 백성인지고, 그들은 스스로 일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더러운 집에 칩거하고, 담배와 도박으로 귀중한 세월을 낭비하고, 놀고먹는 돼지 같은 생을 보내는 것으로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하고 있다.⁹⁾

이치카와의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무지몽매’ ‘태평’ ‘유타’ ‘불결오예’ ‘깁연’ ‘도박’의 열등하고 무능력한 백성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인에 대한 멸시와 편견은 46일간 텐트생활을 하는 동안 현지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그 인식의 틀이 흔들리게 된다. 이치카와의 기행문에서는 동행한 아메리칸인에 대한 열등의식과 근대국가 일본제국의 남아로서의 긍지, 그리고 당시 소비되고 있었던 조선 및 제주도에 대한 마이너스 이미지와 실제 체험을 통해 얻은 제주인의 새로운 인식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24년 간행된 저자 미상의 『미개의 보고 제주도(未開の寶庫 濟州島)』(全羅南道濟州島庁 1924.12)는 이미 조선을 병합한 후에 발행된 식민사업 장려 책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오야기와 이치카와와는 달리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보인다. 언뜻 보기에는 “무지몽매한 인종으로 보이지만, 접해 보면 유순지둔한 야인”으로 일본인에게 우호적이며 “남녀 모두 근면한 미풍”¹⁰⁾을 가졌다고 소개하고, 제주도의 독특한 풍습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에 유포되어 있던 제주도에 관한 언설을 부정하고 있는 듯한 어조 뒤에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에 근거한 동화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¹¹⁾

8) 市河三喜 上掲書. p.338

9) 市河三喜 上掲書. p.367

10) 저자미상 『未開の寶庫 濟州島』(全羅南道濟州島庁 1924.12) p.20

11)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以上の様な腐敗した専横政治を除き近

1930년대에는 앞서 소개한 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화가 츠루다 고로(鶴田五郎)의 『제주도의 자연과 풍물(濟州島の自然と風物)』(中央朝鮮協會 1935.5)이라는 기행수필이 있다. 이 작품에는 근대화와 문명화에 성공한 일본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모습을 제주도에서 발견해 내는 노스텔지어와도 같은 시선이 묻어나고 있다. 츠루다는 이국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제주도에서 “자연 속에 생활하는 인간과 동물의 세계”¹²⁾를 발견하고, 도민의 “원시적 생활”형태는 “도회문명에 중독된 자가 신경을 안정시키러 오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¹³⁾ 이라 소개하고 있다.

1940년대에는 당시 중의원의원 스기야마 모토지로(杉山元治郎)가 식민지개발지역으로서의 유용성을 발견하고 제주를 다녀간 뒤 쓴 「제주도기행(濟州島紀行)」(「政界往来」1941.9) 이 있다. 스기야마는 여성들만 산다는 상상의 섬 ‘여호도(女護島)’를 제주도의 이미지와 중첩시키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목축과 함께 진드기가 많기로 유명”한 곳으로 소개하고, 특히 입도하기 전의 이미지로 제주도를 일본어 독음이 같은 ‘최종도(最終島)’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히는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의 제주도는 지도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본토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총감부에서 일하는 사람 등도 제주도는 전임 전에 잠시 시찰하러 가든가, 혹은 좌천되어 가기 때문에 최종도(最終島)라 부르고, 웬지 불길한 곳처럼 여기고 있다. 하지만 오사카에서는 ‘제주도’란 말을 자주 듣는다. 그것은 제주도 출신으로 일본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75퍼센트가 오사카에 있고, 게다가 대부분 폐품수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선반도 사람 중에서도 제주도라 하면 일종의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오사카에서 ××를 하는 자 중에 비교적 제주도 출신자가 많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제주도는 웬지 꺼림칙한 곳으로 뇌리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¹⁴⁾

1940년대에는 오사카에 거주하는 제주인의 존재가 제주도 이미지 형성

代政治の恵沢に浴せしむに至つたのは日本の保護政治以来で明治39年の司法權の分離は郡守の權力を消き更に警察權の分離によつて郡守の我侷をため良民をして其堵に安せんしむるに至つた」(上掲書. p.36)와 같이 식민정책의 성공사례를 보고하며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12) 鶴田五郎 『濟州島の自然と風物』(中央朝鮮協會 1935.5) p.3

13) 鶴田五郎 上掲書. p.13

14) 杉山元治郎 「濟州島紀行」(「政界往来」1941.9) p.18

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시선은 제주도에 대한 시선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이미지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화 이후 식민지 지배기에 이르는 시기에 발견된 문학작품 속의 제주도 이미지는 당시 미개국으로 치부한 조선에 대한 시선과 마이너스 언설이 그대로 제주도像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제주도를 미개의 섬으로 문명의 이기를 필요로 하는, 즉 일본제국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의 고대문헌의 기록과 제주도의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세 여신이 일본에서 도래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일본과의 친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해방 후의 제주도 기행문에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2-2. 패전 이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까지

일본의 패전 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까지는 일반인의 제주도로의 내도가 불가능했던 때문인지 패전을 전후한 시기에 제주도를 형상화하고 있는 문학텍스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통해 제주도의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의 일부분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의 영토로 전환되는 이 시기의 일본인에게 있어 제주도는 무엇보다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과 함께 본토결전을 대비한 전진기지로서의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남아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호시노 사다하루(星野貞治)의 단편소설 「제주도」이며, 수필로서는 요시오카 미노루(吉岡実)의 「제주도」를 들 수 있다.¹⁵⁾ 두 작품은 제주도에서 혈전을 경험하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점과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제주도주둔의 기억이 전시상황의 긴박함과 거리가 멀다.

그의 집은 바다 근처 부락의 외딴 곳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입구에 한 그루의 나무가 우겨져 때마침 바다 위에서 올라온 달빛

15) 호시노 사다하루의 「제주도」와 요시오카 미노루의 「제주도」에 관해서는 줄고 「호시노 사다하루(星野貞治)의 「제주도」론 - 제주도 주둔 일본군이 본 「제주도」」(『일어일문학』 39집, 2008.8.31)를 참조.

을 가로막고 있었다. 다가가니 집안에서 뭔가 기원하는 듯한 낮은 노랫소리가 흐르고, 그것과 함께 둔탁한 뱃돌 돌리는 소리가 났다. 무례도 다케야마도 그 노랫소리에 무심코 발을 멈췄다. 노랫말은 조선어라서 전혀 몰랐지만, 슬픈 곡조를 띤 선율은 서로의 가슴에 문득 먼 옛날의 자장가를 떠올리게 했다. 두 사람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보니 집안은 어둡고 뒷마루에 뱃돌을 놓고 소년과 그 늙은 숙부가 뱃돌을 돌리면서 노인이 노래하고 그것에 소년이 맞춰 부르고 있었다. 달빛이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동화의 세계처럼 도드라져 보이게 했다.¹⁶⁾

호시노의 소설은 제주도의 자연을 배경으로 일본군과 제주도 소년과의 인간적인 교류를 그리고 있는데, 위의 인용은 ‘더러운 시궁창 쥐’와도 같은 동료 이즈미다상병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소년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들이 소년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을 때의 장면이다. 이 작품의 특징은 만주에서 파병된 일본군(일본 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만주로 이주한 고향상실자)과 국가를 빼앗긴 제주도민을 동일한 지평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의 반국가적, 반전적인 태도는 전쟁말기의 일본군 내부의 부패와 광기를 고발하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박탈당한 자들의 애환, 제주도의 이국적 정취, 서민적인 인간애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시기를 그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서정적이며 목가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 요시오카의 수필은 결전을 대비해 제주도에 들어왔으나 혈전없이 전쟁이 끝나 제주도는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비호한, ‘재생의 토지’¹⁷⁾가 되었지만, 제주도는 어디까지나 일본제국의 한 섬, 식민지로서의 제주도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주도 주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 외에, “흙만두가 꿈틀하고/전투기가 숨었다는 동굴”, 즉 일본군 군사시설의 흔적을 돌아보고 “돌을 쌓아올렸을 뿐인 섬”을 “부들부들 떨게” 한¹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며 쓴 것으로 보이는 기타가와 아케미(北川朱実)의 詩가 2차대전 말기의 제주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이승만 정권의 남한 단독

16) 星野貞治 『濟州島』 『濟州島』(樽棧社 1980.12) pp.66~67

17) 吉岡実 『吉岡実散文抄—詩神が住まう場所』(思潮社 2006.3) p.9

18) 北川朱実 『こぼれる文字—濟州島』(『人のかたち 鳥のかたち』思潮社 2003.10) pp.53~54

정부수립과정에서 발생한 제주도 4.3사건상황을 그린 논픽션 작품이 있다. ‘북한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공동대표이기도 했던 하기와라 료(萩原遼)가 쓴 『북한으로 사라진 친구와 나의 이야기(北朝鮮に消えた友と私の物語)』(文芸春秋 1998.11)이다. 이 소설은 제주도에 밀항해온 소년 윤원일과 ‘제주도의 소년 게릴라’ 김용남(=김민주)과의 인연을 통해 제주도 4.3사건을 접하게 되고, 그러한 두 사람의 인연으로 1996년 여름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의 4.3사건 관련 취재내용 기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북한으로의 귀국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두 동생을 북한으로 떠나보낸 김용남 형제를 통해, 조국을 상실한 재일한인이 식민지종주국에서 받는 차별과 멸시, 재일한인들 내부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북한으로의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한인 이산가족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김용남의 체험을 작자의 상상력과 현지 조사 및 체험을 통해 1948년 당시의 제주도를 재현하고 있다.

1960년의 제주도를 표상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야마시타 세지로(山下清次郎)의 『타국에서의 기적(他国での奇跡)』(新風舎 2006.6)을 들 수 있다. 패전 후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제주인의 귀향선 운항에 종사했던 야마시타가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는 이 수필에서는 민둥산이 많고, 그 민둥산 아래에 민가가 모여있는 한반도 인근의 다른 섬에 비해, 제주도는 “바위동굴과 바위 위의 넓은 곳에 풀이 파릇파릇하여 아름다운 관광의 섬”¹⁹⁾이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야마시타가 실제 제주도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는 제주도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야마시타는 일본의 물품을 판매하는 무역도 겸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지역상인으로부터 “한국 제주도 민족의 예의”²⁰⁾라며 젊은 여성의 접대를 받았다고 회고한다. 이 기술을 통해 제주도에서는 중요한 손님에게 ‘성(性)’을 선물하는 것이 예의라는 식으로 오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일본에서 들인 양파종자를 판매하는 제주여성들과의 접촉 속에 ‘성’적 유혹으로 접근해온 여성에게 판매금액의 일부를 도난당했다는 일화 등 제주도에 대한 기억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마이너스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것은 야마시타의 타 지역(마산)에서의 체험담에는 볼 수 없는

19) 山下清次郎 『他国での奇跡』(新風舎 2006.6) p.17

20) 山下清次郎 上掲書 p.12

내용이다.

2-3. 일본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1964년 4월 일본은 구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세계 각국으로의 해외여행을 자유화한다. 그러나 이 당시의 외국여행은 업무, 시찰, 유학과 같은 특정 목적으로 제한했고, 순수 관광을 위한 여행은 허락되지 않았다. 한국여행의 경우,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양국간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일본인관광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은 1970년대이다. 그러나 1970년대 초기의 한국관광의 특징은 방한 일본인 50만명 중 약 47만 명이 남성이었고 또 그 대부분이 40~50대 남성이 차지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소위 ‘기생관광’이라 불린 매춘관광문제가 부상했고, 서울올림픽 개최 시기까지 한국은 ‘남성천국의 관광지’란 마이너스 이미지가 남아있었다.²¹⁾ 이러한 ‘기생관광’의 이미지 확산은 김석범의 문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²²⁾ 이러한 시기에 실제 일본인은 제주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난 이후 주목할 만한 작품은 기리야마 가사네(桐山襲)의 「유랑연예인(旅芸人)」(『文芸』 1985.4)이라는 단편소설이다. 단장을 비롯한 단원들은 모두가 병어리, 외눈, 난장이와 같은 신체적인 외

21) 吳億鍾 「韓國の觀光マーケティング戰略—『觀光ビジョン21』を中心に」(『立命館経営学』42卷4号 2003.11) pp.129~152 참조.

22) 김석범은 『세계의 나라 시리즈 15 조선·몽골』(講談社 1983.12)에서 제주도에 대해 “최근, 일본인의 한국여행, 주로 관광여행이 활발해지고, ‘기생관광’이라든가 ‘기생파티’라는 썩 좋지 않은 조어까지 나와 그것이 또 “관광”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알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일본에서의 오늘날의 제주도의 일반적인 이미지도 관광지로서의 그것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를 외화벌이 일대 관광지대, 리조트 지대로서 외화자본을 도입하고 개발에 힘을 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고, 특히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크게 분투하는 모습이다. 고층관광호텔이 서고, 그리고 카지노가 있고, 바다낚시, 썰 사냥 그 밖의 액션레저가 있고, 낚시도구와 산탄총을 맨 일본인관광객들이 간다. 물론 그들도 호텔에 숙박하는 것이고, ‘기생파티’가 곁들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 항공편은 일본에서 서울, 부산경유 외에 오사카-제주도직항이 주 네 편 있고,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다. 제주도가 입국사증없이 패스포트만으로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한국내의 유일한 “관광지”인 것도, 사람들을 가볍게 그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 소개하고 있다. 인용은 김석범의 『고국행(故国行)』(岩波書店 1990.8)에 의함. pp.158~159

상을 지니고 있어, 일제침략기, 해방, 제주도4.3사건, 한국전쟁, 4.19혁명, 5.16혁명 등 한국의 민주화에 큰 획을 긋는 대사건들을 유랑극단과 그 구성원의 운명과 중첩시켜 권력의 폭력성을 그로테스크하게 그리고 있다. 소설 속에서 제주도는 강한 허구성을 띤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있다.²³⁾ 기리야마는 삼다도로 알려진 화산섬 제주도의 대표적인 이미지와 4.3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과감한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삼다의 여자를 쌍둥이로 교체시키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빨치산혁명의 영원성이다. 그의 문학적 상상력은 지배세력의 권력과 맞서는 투쟁정신을 제주도에서 다시금 환기시키려 한 것이다. 이때 쌍둥이라는 설정은 고정적 이미지를 탈구축하는 문학적 장치로 작용한다. 1960년4월19일에 태어난 단장의 쌍둥이형제, 고아원에서 입양한 제주도 출신의 쌍둥이자매, 이 쌍둥이라는 모티브는 한라산 무장봉기의 지도자가 쌍둥이라는 설정에 이르러 그 의미가 명백해진다. K시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아들이 광주민주화투쟁 현장에서 진압에 나선 군인들에 의해 시체가 되어 트럭에 실려 갔다는 소문과 지금도 살아남아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암시, 한라산에서 무장봉기한 지도자를 처단했다는 정부측 뉴스와 살해당한 것은 쌍둥이형제의 한쪽으로 나머지 한쪽은 아직도 살아서 무장군을 지휘하고 있다는 소문, 이러한 상반되는 정보가 동시에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쌍둥이라는 설정이 있어 가능했다. 즉, 4.3투쟁과 광주민주화투쟁은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종식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민중들의 언설 속에는 새로운 혁명의 가능성으로서 구전되고 있는 것이다.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 섬이 아니라 쌍둥이를 불길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내다버린 쌍둥이들로 인해 쌍둥이가 많은 섬이 되었다는 것은 유배지 제주의 이미지를 의식한 가공의 설정이다. 일생을 통해 추구해 온 기리야마의 문학적 테마²⁴⁾는 제주도를 사실과는 거리가 먼 혁명과 투쟁의 가능성을 잠재한 허구의 섬으로 형상

23) 桐山襲 「旅芸人」(『文芸』1985.4) p.43

24) 1980년대의 필화사건이라고도 불리는 「빨치산전설(バルチザン伝説)」(『文芸』1983.10)로 알려진 작가다. 1992년 「미장의 때(未葬の時)」(『文芸』1992.夏季号)라는 작품을 유작으로 42살의 젊은 나이에 사거. 그가 일생동안 다루어 온 문학적 테마는 「빨치산전설(バルチザン伝説)」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에 의한 소화천황 열차 폭파 계획(무지개작전)을 비롯하여, 1960년대 말 진공투에 의한 학원투쟁과 연합적군사건, 오키나와투쟁, 한국의 광주학생 민주화투쟁 등, 혁명·반국가·반체제로 일관된 것이었다.

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소설에는 ‘기생관광’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사양길에 오른 유랑극단에게 있어 ‘경제적 구세주’는 쌍둥이 가수 자매였다. 이들을 “화폐의 힘으로 불러들이는 손님은 일본남자뿐”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일본인의 “한반도의 여자 앞에 긴 행렬을 이룬다고 하는 옛날부터의 습성”²⁵⁾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쌍둥이자매를 통해 상기시키는 매춘관광의 이미지는 조선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한 일제의 정신대에 대한 패러디임을 알 수 있다.

한국으로의 여행이 자유화되고 직접 제주도를 다녀간 후 발표된 대표적인 기행문에는 시마 료타로(司馬遼太郎)의 『탐라기행(耽羅紀行)』(朝日新聞社 1986.11)과 사사키 미키로(佐々木幹郎)의 『아시아해도기행(アジア海道紀行—海は都市である)』(みすず書房 2002.6), 그리고 이쿠시마 지로(生島治郎)의 「제주도 엘레지(濟州島エレジィ)」(『世界』1984.6)를 들 수 있다. 전자의 두 기행문은 현실의 눈앞에 존재하는 제주도에 대한 기행이라기보다 고대문헌기록을 추체험하는 식의 기행기록으로 역사의 심층에 숨은 거대한 고대의 화석을 발견하고 확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반해 후자인 이쿠시마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한국출신 부인의 여동생 부부와 함께 찾아온 데서 생긴 해프닝을 그리고 있다. 신혼부부들로 만석을 이룬 비행기로 제주에 도착한 이쿠시마는 예약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묵을 객실이 없다고 냉대하는 호텔측 대응에 당혹한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신혼부부들과 호텔 커피라운지에서 대기하며 당시 “에너지절약 때문인지 제주도의 밤은 불빛이 적고, 실제로 대단히 어두운”²⁶⁾속에서 느꼈던 낭패감과 불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1980년대 국내최고의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던 제주도에선 일본인 관광객이 본 것은 항공사 승무원과 호텔 프론트 직원들의 일종의 엘리트의식과도 같은 거만한 태도였던 것이다.

25) 桐山襄 前掲書. p.45 “자매를 화폐의 힘으로 불러들이는 손님, 일본 남자뿐이었다. 그들은 자유무역지역에서 한 밀천 잡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공장주였거나, 매상이 배로 증가한 것에 대한 포상으로 2박3일의 여행을 선사받은 회사원이었거나, 반도의 ‘민속예능’을 연구하고 싶다는 대학생이었거나, 수학여행지 예비조사를 하러 왔다는 고등학교 교사였거나, 보너스를 모은 경찰관이었거나 했다.”

26) 生島治郎 「濟州島エレジィ」(『世界』1984.6) p.317

2000년대에 들어서면 관광의 섬으로 제주도를 형상화한 장편소설 2편 보인다. 란 치요마루(蘭千代丸)의 『마지막 인연(最後の絆)』(今日の話題社 2004.10)의 경우, 소설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 제주도이다. 청년실업가로 크게 성공한 사에키는 지역사상 최연소자로 지방의원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으나, 선거 낙선 후 술과 피로가 원인으로 환기증후군, 불안신경증 등으로 이어져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이어 친동생의 계약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한때 서비스계통의 사업을 변창시키기도 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다.

뭐라 해도 이 섬은 자연이 좋다. 상큼한 바다 향. 태고의 로망을 느끼게 하는 파도소리. 7월의 제주는 마침 장마기간이다. 백만의 도시를 겨냥한 이 국제자유도시는 지금은 60만 명에까지 달하고 있다. 관광지로서 세계적으로 되기 전에는 한국인의 신혼여행의 중심지였다. 삼다도- 여자·바람·돌이 많은 섬-라 칭해지는 이 제주도의 바람의 세기는 정말 대단하다. 2002년7월, 사에키는 태풍9호 상륙보다 조금 먼저 이 섬에 상륙했다.²⁷⁾

여행지 제주도에서 제주도와 서울을 왕래하며 옷가게를 하고 있는 유미사라는 여성을 만나게 된다. 용두암, 산방산굴사, 중문관광단지, 천왕사, 약산사 등의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두 사람에게 찾아온 사랑과 시련의 드라마가 전개된다.

라이트노벨작가 마츠유키 가호(松幸かほ)의 『장미의 약탈 사랑의 서약(薔薇の略奪 愛の誓い)』(心交社 2006.4)은 BL소설(Boys love소설)이다. 광역폭력단 소가과(宗蛾組) 두목의 삼남인 미유키가 이탈리아의 마피아 빅토리오에게 납치되어 이탈리아의 한 섬에 감금된다. 제주도는 미유키 일과가 중국인 폭력단과의 밀거래를 위해 잠시 체재하게 되는 곳으로 섬에서 또 다른 섬으로 이동되는 거점지 역할을 할 뿐으로,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주도는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리조트지라는 정도일 뿐이다.²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는 기리시마와 같이 자

27) 蘭千代丸 『最後の絆』(今日の話題社 2004.10) pp46~47

28) 松幸かほ 『薔薇の略奪 愛の誓い』(心交社 2006.4) 미유키가 제주도의 모 호텔에서 그의 부하 오사토와 나누는 대화의 중, 제주도가 한국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오사토에게 한국제일의 리조트지임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다.(p.11)

신의 문학적 테마를 위해 제주도를 사실과는 다른 가공의 섬으로 새로이 구축한 예도 있으나, 이는 ‘4.3사건의 섬’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변용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의 작품은 ‘관광의 섬’으로의 형상화가 지배적이었다.

1996년6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참석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수상은 「아사히신문」 지상에서 제주도를 “풍부한 자연과 온난한 기후, 고래로부터의 신화로 둘러싸인, 한국의 휴향의 토지로 들고 있다. 아열대풍의 아름다운 자연과 고래로부터의 전통에 둘러싸인 생활, 선진적인 관광시설이 훌륭하게 융합”²⁹⁾한 곳이라 언급했다. 이처럼 해외 여행자유화 이후의 제주도는 ‘관광의 섬’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혀간다. 이 쿠시마의 기행문에서 나타난 관광지 제주도에 대한 불쾌하고 어두운 인상도 1990년대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관광명소와 지명의 언급 등 제주도를 체험한 일본인 작가에 의해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 휴양지, 신혼여행지, 리조트지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3. 제일제주인이 본 ‘제주도’

본 장에서는 제일한인, 특히 제일제주인에 의한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2] 제일제주인 세대별 분류

세대별분류	제주도 연고 제일한인 문인
제일1세대	김시중(金時鐘;시인), 김태생(金泰生작가), 강제인(姜在彦역사·사상사 연구가), 신인홍(申仁弘;수필가), 박동염(朴東廉 수필가, 오선화 吳善花 평론가, 김수선(金水善;시인), 김길호(金吉浩;작가)
제일2세대	김석범(金石範;작가), 정인(鄭仁시인), 양석일(梁石日작가), 종추월(宗秋月시인 작가), 다케다 세이지(竹田靑嗣문예비평가), 문경수(文京溟정치학자), 원수일(元秀一;작가), 김창생(金蒼生 작가), 이양자(李良棧 작가), 최애자(崔愛子 수필가), 현월(玄月;작가), 김중명(金重明작가), 김마스미(金真須美작가), 고찬유(高贊侑;논픽션작가), 고정재(高貞子 아동문학가, 허옥녀(許玉汝 시인, 김계자(金啓子;작가), 원정미(元靜美;아동문학작가), 최애자(崔愛子;수필가),
제일3세대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작가)

29) 「朝日新聞」1996년6월23日 朝刊

재일제주인문인을 세대별로 분류해 보면, 시대의 혼란 속에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 표현의 방법을 갖지 못한 1세대에 비해, 2세대의 문인 수는 비교적 많은 편이며, 3세대 이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귀화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루트의식을 거부하는 세대가 등장하는 현실이다보니 이런 현상은 재일제주인에 한하지 않고, 재일한인문학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상반기 제123회 나오키상(直木賞)을 수상한, 자칭 ‘코리언 제페니즈’작가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의 『GO』(講談社 2000.3)에는 국적이란 것의 속박을 벗어나 경계의 저편을 응시하려는 태도와 기성의 민족적 패러다임을 탈구축하려는 시도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네시로의 작품 속에서 선조의 고향인 ‘제주도’, ‘제주도’적인 것이 형상화된 흔적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재일제주인 중 제주도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가와 작품은 [표3]과 같다.

[표3] 재일제주인 문인에 의한 제주도 표상 작품

저자명	출생연도	제주관련문학작품	장르
신인홍 (申仁弘)	1921~	『천지유정-수당야화(天地有情-水堂夜話)』(海風社 1988.1)	에세이
김태생 (金泰生)	1924 ~1986	『동화(童話)』(1958.2 「文芸首都」→「季刊三千里」1977 여름호) 『후예(末裔)』(「鷄林」창간호 1958.11→「新日本文学」1982.9) 『둥지 떠나기(巣立ち)』(「文芸展望」봄호 1977.4)	소설
김석범 (金石範)	1925~	『까마귀의 죽음(鴉の死)』(振興書房1967.9 講談社 1971.10) 『만덕유령기담(万徳幽霊奇譚)』(筑摩書房 1971.11) 『꿈, 풀 깊음(夢、草深し)』(講談社 1995.6) 『화산도(火山島)』全7卷(文芸春秋 1983.6~1997.9) 『바다 밑에서 땅 밑에서(海の底から、地の底から)』(講談社 2000.2) 『만월(満月)』(講談社 2001.8) 『지저의 태양(地底の太陽)』(集英社 2006.11)	소설
박동엄 (朴東廉)	1927~	『벗과 사랑, 그리고 어머니-어느 조선인 1세의 마음에 남는 사람들(友と愛、そして母—ある朝鮮人一世の心に残る人々)』(新幹社 2001.7)	에세이
김시중 (金時鍾)	1929~	『이카이노 시집(猪飼野詩集)』(東京新聞出版局 1978.10) 『원야의 시(原野の詩)』(立風書房 1991.11) 『화석의 여름(化石の夏)』(海風社 1998.10)	시
양석일 (梁石日)	1936~	『제사(祭祀)』(「택시광조곡(タクシー狂躁曲)』(筑摩書房 1981.11) 『천둥소리(雷鳴)』(徳間書店 1995.10) 『피와 뼈(血と骨)』(幻冬舎 1998.2) 『몽마의 저편으로(夢魔の彼方へ)』(ヒレージセンター出版局1998.6)	소설 시

종추월 (宗秋月)	1944~	『종추월시집(宗秋月詩集)』(編集工房ノア 1971.4) 『이카이노·여자·사랑·노래(猪飼野·女·愛·うた)』(ブレーンセンター 1984.8)	시
		『이카이노 태평 안경(猪飼野のんき眼鏡)』(「民濤」創刊号 1987.11) 『불꽃-히라노운하(華火-平野運河)』(「民濤」終刊号 1990.3)	소설
		『이카이노타령(猪飼野タリョン)』(思想の科学社 1986.7) 『사랑해(サランへ)』(影書房 1987.7)	에세이
원정미 (元静美)	1944~	『이야기 할망-제주도 옛날이야기(おはなしハルマンさま-濟州島の昔ばなし)』(新幹社 1996.8)	동화
김길호 (金吉浩)	1949~	『이쿠노아리랑(生野アリラン)』(「월간문학」2003.9)	소설
허옥녀 (許玉汝)	1949~	『허옥녀시집(許玉汝詩集)』(문예동오사까지부상임위원회 2006.1)	시
원수일 (元秀一)	1950~	『이카이노이야기-제주에서 온 여자들(猪飼野物語-濟州からきた女たち)』(草風館 1987.7) 『발병(発病)』(「民濤」1989.2)	소설
최애자 (崔愛子)	1950~	『기억의 강-재일2세를 살다(記憶の川-在日二世 生きる)』(梨木舎 2004.10)	에세이
김계자 (金啓子)	1950~	『소나기(むらさめ)』(「部落解放」2002.4)	소설
김창생 (金蒼生)	1951~	『나의 이카이노-재일2세의 조국과 이국(わたしの猪飼野-在日二世にとっての祖国と異国)』(風媒社1982.11)	에세이
		『세월(歲月)』(「<在日>文学集 10」勉誠出版 2006.6) 『고도(孤島)』(「제주작가」13호 2004·하반기)	희곡
		『도새기(豚の子)』(「제주작가」15호 2005·상반기)→『在日女性文学 地に舟をこげ』2006.11)	소설
이양지 (李良枝)	1955~1992	『해녀(かずきめ)』(講談社1983.9 초출:「群像」1983.4)	소설
오선화 (吳善花)	1956~	『나는 어떻게 해서 <일본신도>가 되었는가(私はいかにして<日本信徒>となったか)』(PHP研究所 1999.7) 『바다 지편 나라로-(海の彼方の国へ-日本をめざす韓国・濟州島の女たち)』(PHP研究所 2002.4)	에세이
김중명 (金重明)	1956~	『바다의 민중(阜の民)』(講談社 2006.3) 『항몽의 오름-삼별초 탐라전기(抗蒙の丘-三別抄耽羅戰記)』(新人物往来社 2006.6)	소설
김마스미 (金真須美)	1961~	『불타는 초가(燃える草家)』(「新潮」1997.12)	소설
현월 (玄月)	1965~	『그늘 집(蔭の棲みか)』(「文学界」1999.11) 『무대배우의 고독(舞台役者の孤独)』(「白鴉」1998.4→「文学界」1998.12)	소설
김수선 (金水善)	미상	『제주도 여자(濟州島の女)』(土曜美術社 1995.3)	시

김영 (金榮), 양스미코 (梁澄子)	미상	『바다를 건너 조선인 해녀-(海を渡った朝鮮人海女—房総のチャムスを訪ねて)』(新宿書房 1988.5)	에세이
박일본 (朴日粉), 김윤순 (金潤順)편	미상	『생애현역 재일조선인-사랑과 투쟁의 이야기(生涯現役 在日朝鮮人—愛と闘いの物語)』(同時代社 2004.11)	에세이

3-1. 4.3사건의 <섬>

1948년4월3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비극은 사건의 직접 체험 여부를 막론하고, 재일제주인에게 있어 가장 큰 문학적 과제이며, 재일제주인문학 연구 및 비평에 있어서도 중심테마라 할 수 있다.³⁰⁾ 국내 연구자들 중에서는 재일한인문학 중에서도 ‘재일4.3문학’으로 분류하여 그 문학적 특수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김환기의 『재일4.3문학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일본학보』69집 2006.11)일 것이다. 김환기는 재일문학에서 제주도라는 지역이 가지는 의미에 주목하여 재일제주인이 산출한 4.3사건관련 작품을 소개, 재일문학 속의 4.3문학을 국내의 4.3문학 연구동향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

제주지역 내에서는 재일제주인의 삶을 밀착 취재, 연구하는 가운데 그들이 산출한 문학작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소위 ‘재일제주인문학’이라

30) 특히,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만 보더라도, 먼저 4.3문학연구의 선구적 역할을 한 김영화의 『분단상황과 문학』(국학자료원 1992)외에도 김병택의 『한국 현대시론의 탐색과 비평』(제주대학교출판부 1999)과 『한국문학과 풍토』(새미 2002), 양영길 『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푸른사상 2001), 고명철 『비평의 잉겔볼』(새미 2002),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2003)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한편, 김석범과 같은 작가의 일본문단에서의 눈부신 활동으로 일본인 연구자들 중에서도 4.3문학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오노 테지로(小野悌次郎) 『存在の原基—金石範文学』(新幹社 1998.8),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在日朝鮮人文学論』(平凡社 1999.9), 나카무라 후쿠지(中村福治) 『金石範と「火山島」—濟州島4・3事件と在日朝鮮人文学』(同時代社 2001.8), 츠부라야 신고(円谷真護) 『光る鏡—金石範の世界』(論創社 2005.10) 등이며, 이 외에도 하야시 코오지(林浩治)의 『在日朝鮮人日本語文学』(新幹社 1991.7)과 『戦後非日本文学論』(新幹社 1997.11),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의 『始原の光—在日朝鮮人文学論』(創樹社 1979.9)과 『<在日>文学論』(新幹社 2004.4) 등의 재일한인문학 연구서에도 4.3사건을 테마로 한 작품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는 명칭으로 그 연구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제주출신 재일작가 김길호는 「제주출신 및 본적지(원적지)를 제주에 둔 재일동포들의 문학 활동」(『학술세미나 在日제주인의 삶과 제주도』제주도발전연구원 2005.3)에서 제주연고작가 17명을 발굴하고 각각의 연보와 그들의 제주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강영기는 「제주, 재일 제주인, 그리고 문학」(『제주작가』2005.12)에서 재일제주인에 대한 인식을 제주문학(현길언, 오성찬), 중간자적 입장(김길호), 재일제주인문학(김석범, 김창생, 양석일)이라는 세 가지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4.3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때에 김석범은 이미 「간수박서방(看守朴書房)」(『文芸首都』1957.8)과 「까마귀의 죽음(鴉の死)」(『文芸首都』1957.12)을 발표하고 있다. 김석범은 이어서 「관덕정(觀德亭)」(『文化評論』1962.5), 『만덕유령괴담(萬德幽靈怪譚)』(筑摩書房 1971.11), 전7권의 대작 『화산도(火山島)』(『文芸春秋』1983.6~1997.9)를 거쳐, 최신작 『지저의 태양(地底の太陽)』(集英社 2006.11)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주도4.3사건을 중심 테마로 다루었다. 남한 단독정부수립 반대 민중봉기의 진상과 양민대학살에 대한 역사적 고발, 통일조국이라는 그의 염원이 『화산도』라는 대장편을 완결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의 군경, 미군, 서북청년회라 불린 우익 테러조직에 의한 도민 대학살 만행이 폭동의 섬, 빨갱이의 섬이라는 오명을 단 채, 역사의 저편에 묻혀 있어야만 했던 사실에 대해, 『화산도』는 그동안 봉압되어 왔던 진실 규명의 목소리를 화산 폭발처럼 일시에 분출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김석범의 작품세계는 국내외 문단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인에게 제주도를 4.3사건이라는 대참사의 발생지로써의 이미지를 고착시켰다.

6살에 어머니와 헤어져 일본으로 건너간 김태생은 1955년 「담껍(痰コップ)」이라는 단편을 「신조선(新朝鮮)」8호(1955.9)에 발표하면서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고향 제주도와 어머니와의 이별을 그린 「동화(童話)」(『文芸首都』1958.2→『季刊三千里』1977.여름호), 오사카를 무대로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신을 돌봐주던 숙모의 죽음을 그린 「소년(少年)」(『季刊三千里』1975.겨울호)등, 초기작은 주로 생이별한 어머니, 폐결핵이라는 병마와 싸워야 했던 자신의 체험과 주변의 인물들을 제재로 한 작품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석범이 「간수박서방」과 「까마귀의 죽음」을 연이어 발표하자 이

에 자극을 받은 듯 문예잡지 「계림(鷄林)」창간을 즈음해서 4.3사건 전후의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후예(末裔)」(「鷄林」창간호 1958.11→「新日本文学」1982. 9)와 「둥지 떠나기(巢立ち)」(「文芸展望」春号 1977.4)라는 단편을 발표했다. 「후예」는 무장봉기군으로 입산한 형을 도와 종이를 조달하고 있는 중훈이 물품을 전할 약속 장소에서 만난 소년과의 대화에서는 친구의 일가족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악몽처럼 떠올리며 소중한 가족을 잃고 싶지 않은 소년의 간절한 소망이 잘 그려져 있다. 「둥지 떠나기」는 일본군이 주둔해 있는 시기부터 조국해방, 그리고 4.3사건으로 제주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 안에 그려지는 것은 우정, 우애, 가족의 단란과 행복을 염원하는 소년의 애뜻한 마음이다. 김태생은 4.3사태 한가운데 놓여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소년의 시점으로 사태를 간접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김태생 소설의 특징에 대해 하야시 코지(林浩治)는 김석범이 ‘사회소설의 언어’로 제주도 사태를 냉철하게 그리고 있는 데 반해 김태생은 ‘사소설의 언어’로 평이하면서도 예리하게 그리고 세련된 사실적 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³¹⁾ 「둥지 떠나기」의 성훈이 조국해방의 의미를 “흠어져 있던 가족이 사이좋게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³²⁾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김태생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소중한 것을 잃는 것”³³⁾이다. 김태생에게 있어 어머니는 곧 제주도 그 자체이고, 그 안에서 벌어진 유혈사태는 그의 마음의 고향에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던 것이다.

양석일은 한일의 정치구조 속의 재일한인사회와 일본인사회, 조국분단이 가져온 재일한인사회 내부의 이데올로기 대립, 고도경제성장기의 일본사회, 일본적 변영의 이면에 감춰져 있던 어둠의 세계, 이러한 현대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허구와 실상을 택시드라이버의 눈으로 파헤치는 작품으로 데뷔하여 주목을 받은 작가이다. 김시중, 정인 등과 함께 「진달래(チンダレ)」동인이기도 했던 양석일의 문학은 시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유일한 시집인 『몽마 저편으로(夢魔の彼方へ)』(ピレッジセンター 1996.9)에는 「심연에서(深き淵より)」를 포함한 1950년대 저작시 12

31) 林浩治 「金泰生の濟州島蜂起文学」 『在日朝鮮人日本語文学』(新幹社 1991.7) p.121

32) 金泰生 「巢立ち」(「文芸展望」春号 1977.4) p.197

33) 金泰生 「末裔」(「鷄林」1号 1958.11) p.36

편과 1972년작 「몽마의 저편으로」1편, 총 13편의 시가 실려 있다.

밤의 환락가 군중의 틈새에서/술에 취한 한 남자가 내 차에 탔다/노동에 찌든 주름투성이의 흉한 얼굴이다/나는 택시 핸들을 쥐고/백미러 거울로 다가오는/남자의 얼굴에 공포를 느낀다/남자는 승무원증의 나와 같은 성인/제주도출신의 <양>이라고 했다/1948년 제주도봉기의 마지막 싸움에서 져/어둠 속을 기어서 한라산을 내려왔다/지하 동굴에 숨어서/거기서 10년의 세월을 보냈다/《나는 내 배설물을 먹고 연명해 왔다. 혈족은 모두 살해당하고, 내 눈앞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범해지고 살해당했다. 그 광경을 나는 동굴 속에서 엿보고 있었다》/배후에서 제주도말로 말 걸어오는 남자의 얼굴과 내가/백미러에서 하나로 겹쳐진다/오오 나의 유령/내가 너이고/내가 나다³⁴⁾

시속 120키로로 어둠 속을 질주하는 택시는 ‘나’의 분신을 태우고 불가역의 시간을 역주한다. ‘나’는 제주도4.3사건, 1952년 오사카에서 발생한 ‘동지N’의 원죄사건, 홋카이도의 유바리탄광의 조선인수용소, 관동대지진 대학살 등 역사의 한 장면 한 장면을 환시하게 된다. 이 시에서 보는 것처럼 백미러를 통해 ‘나’의 분신과 대면한다는 설정과 환상성은 양석일 시의 특징이다. 나의 분신 ‘제주도출신의 <양>’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말들³⁵⁾은 고향을 떠나 식민지종주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재일 한인의 고난의 역사를 고발하고 있다.

김창생의 경우, 『나의 이카이노(わたしの猪飼野)』(風媒社1982.11)에 수록된 「이카이노에조차 일장기는 펄럭인다(猪飼野にさえ日の丸は翻る)」에 김석범의 소설과 김봉현의 『제주도 피의 역사(濟州島血の歴史)』(国書刊行會 1978.4)를 통해 제주도4.3사건을 추체험하고, 가본 적 없는 제주도비행장과 그곳을 가득 메운 시체들을 환시하는 부분이 있다.³⁶⁾ 이후 『제주도 4.3사건 6 초도화작전 하』(新幹社 2004.4)번역을 맡기도 한 김창생은 고향 제주도의 현실과 4.3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4.3사건을 주제로 한 회

34) 梁石日 「夢魔の彼方へ」 『夢魔の彼方へ』(ビレッジセンター-1996.9) pp.42~43

35) 예를 들면 《소도 말도 돼지도 인간도 같은 내장이다. 나는 이것과 같은 광경을 홋카이도 유바리탄광의 조선인 수용소의 합숙소 방에서 체험했다》(p.48) 《관동대지진 때, 일본인 군중이 나를 불더미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 때 그들의 큰 웃음소리가 내 귓전에 남았다》(p.49) 등을 들 수 있다.

36) 金蒼生 「猪飼野にさえ日の丸は翻る」 『わたしの猪飼野—在日二世にとっての祖国と異国』(風媒社 1982.11) p.106

곡 「고도(孤島)」를 「제주작가」13호(2004.12)에, 이듬해엔 단편소설 「도새기」를 동일문예지 15호(2005.12)에 각각 번역 발표했다.³⁷⁾ 그리고 2006년 『<재일>문학전집 10』(勉誠出版 2006.6)발간을 기해 탈고한 일인연극대본 「세월(歲月)」 또한 4.3사건을 다루고 있다.

김중명은 『환상의 대국수(幻の大国手)』(新幹社 1990.11), 『산학무예장(算学武芸帳抗)』(朝日新聞社 1997.10), 『바다의 민중(阜の民)』(講談社 2000.6), 『항몽의 오름—삼별초 탐라전기(抗蒙の丘—三別抄耽羅戰記)』(新人物往来社 2006.6) 등의 역사소설가로 알려져 있으며, 『쉬리』(1999), 『JSA』(2001), 『천국의 계단』(2005)과 같은 한국의 영화 및 드라마를 번역, 소개하기도 한 작가이다. 1994년부터 「제민일보」 4.3취재반 『제주도4.3사건』 1권부터 6권까지 번역을 맡았고, 「호르몬문화(ほ르몬文化)」의 편집을 맡으면서부터 「호르몬문화」에 단편을 발표해 왔다. 그 중 「순옥할머니의 신세타령(順玉ばあさんの身世打令)」(「ほ르몬文化」8, 1998.12)은 김창생의 「세월」과 마찬가지로 일인연극형식으로 해녀출신의 순옥할머니의 삶을 통해 4.3사건의 비극성을 증언하고 고발하는, 제주민중의 수난사적 측면에 주목한 작품이다.

김길호는 제주시 삼양 출신의 재일제주인 1세대. 제주문인협회 회원으로 「제주도」 「제주문학」 「제주작가」 등의 문예지에 작품 발표를 하고 있는 작가이다. 「이쿠노아리랑」(「월간문학」2003.9)은 4.3사건 때 어린 아들을 제주도에 남겨두고 일본으로 건너와 현재 이쿠노의 조선시장에서 식료품가게를 하고 있는 70대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리고 있다. 제주도 방언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에 체재 중인 송교수와 노부부가 나누는 대화 속에 당시 의사였던 시아버지가 폭도와 내통했다는 혐의로 서북청년단원에게 살해당하고, 이 사실에 분개한 남편이 시아버지를 죽인 청년대원을 죽이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살해당하고 만 할머니의 4.3체험담이 서술되어진다.

이와 같이 재일제주인작가에게 있어서는 4.3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비극성 고발, 그리고 역사적 재조명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현실과제이자 문학적테마임을 알 수 있다.

37) 이 작품은 이듬해 재일한인여성문예지로서는 처음으로 발간되는 「땅에 배를 저어라(地に舟をこげ)」(창간호, 2006.11)에 일본어로 재게재하여 일본어 독자에게도 읽히고 있다.

3-2. 차별과 멸시의 <섬>

일본제국주의와 미국제국주의의 횡행에서 벗어나 남북이 하나된 조국을 꿈꾸며 조선이란 국적을 고집해 온 민족주의자 김석범에게 있어 제주도는 “정치적으로 금기의 땅, 환상의 토지”³⁸⁾였다. 그러나 관념으로서의 고향 제주도에 대한 심상풍경은 4.3사건의 비극 외에 또다른 제주도像을 표출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유배의 땅”, “저주받은 천벌의 땅”, “본토인으로부터의 멸시와 차별이 축적된 땅”으로서의 제주도이다.

소년시절 본토에서 제주도란 곳은 어디에 있는 거냐, 불을 차면 금세 바다에 떨어져 죽기 따위 할 수 없을 거라고 조롱당한 일이 있다. 지금 제주도에 서 갖은 횡포를 다하고 있는 ‘서북’들의 입버릇 중 하나에 “정어리도 생선이나, 제주도 새끼도 인간이나”라는 것이 있다. 옛날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방치된 “지수민빈(地瘦民貧)”의 학대받은 백성의 땅. 일찍이 적객(정치범)들이 위험한 수륙의 길을 간난신고 끝에 몇 달이나 걸려 서울에서 당도한 유배의 땅. 저주받은 천벌의 땅으로 본토인으로부터의 멸시와 차별이 축적된 땅이다. 그리고 지금은 게릴라봉기를 하고 있는 “혁명의 땅”, 아니 “폭도”에 의한 반란의 땅인 것이다.³⁹⁾

제주인에게 내뱉는 서북청년단원들의 “정어리도 생선이나, 제주도 새끼도 인간이나”란 조롱과 멸시에 대해 작자는 ‘잡어인 정어리도 생선임에는 틀림없고, 제주도인도 인간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그토록 많은 양민학살이 가능했던 이유의 근거에는 본토와 제주와의 사이에 형성되어온 차별과 피차별 구도가 존재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주인에 대한 차별적 언설은 양석일의 소설에도 나타나고 있다. 『천둥소리(雷鳴)』(徳間書店 1995.10)는 토지조사령과 함께 시작된 일제의 토지수탈의 손길이 제주도에도 예외없이 뻗쳐와 토지, 임야, 어업권까지 모두 일제의 손으로 넘어간 시대를 배경으로, 조흔이라는 유교적 인습에 따라 8살 어린 남편에게 시집온 하급 양반출신인 이춘옥이라는 여

38) 金石範 「あとがき」 『鴉の死 夢、草深し』(小学館文庫 1999.3) p.249

39) 金石範 『火山島 IV』(文芸春秋 1996.8) p.239

성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아래 인용부분은 시아버지 윤종현이 일제의 앞잡이와 손을 잡고 친정의 토지마저 빼앗아 부를 축적하여 가옥 신축공사를 벌이는데, 집안에서 일하는 인부들에 대한 윤종현의 의식을 서술한 부분이다.

옛날부터 제주도 사람은 육지 사람에게 경멸받고 차별받아, 제주도 인간은 정어리가 사람인가, 라든가, 산에서 공을 차면 바다에 떨어졌다고 바보취급당하고 있다. 예외는 있지만, 육지 사람과 제주도 사람은 결혼도 할 수 없다. 그러한 것이 있어, 제주도 음식은 먹을 게 못된다고 멸시받고 싶지 않은 윤종현은 목수들을 위해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성찬을 제공했다. 목수들은 섬사람에 대해 어딘가 모르게 깔보는 태도를 취하고, 섬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열등의식을 계속 지니고 있었다.⁴⁰⁾

척박한 땅에 그나마 농사지을 수 있는 토지마저 빼앗겨 굶주림에 허덕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종현은 육지출신의 인부들에게 멸시받지 않기 위해 진수성찬을 준비한다. 제주인에 대한 육지인의 차별과 멸시, 그리고 제주인의 육지인에 대한 ‘열등의식’이 윤종현이라는 인물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김창생의 에세이 「정어리가 왔어요(鰐が来ました)」라는 문장 속에는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위해 증명사진을 촬영하러 간 김창생이 등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조선시장에 들러 정어리를 사서 조리해 먹은 이야기가 나온다. 3년마다 피할 수 없는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범죄자 취급하듯 지문날인까지 해야 하는 번거롭고 불쾌한 심정과, “정어리가 생선이나, 조선인이 인간이나”라는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에 대해, 김창생은 값싼 정어리를 먹으면서 “정어리도 생선이다, 조선인도 인간이다”라며 혼잣말을 되뇌는다.⁴¹⁾ 김석범과 양석일의 제주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김창생에게는 재일한인에 대한 그것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방인은 기미가요마루를 타고(異邦人は君ヶ代丸に乗って)』(岩波書店 1985.8)에서 논픽션작가 김찬정은 제주출신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소개하

40) 梁石日 『雷鳴』(幻冬舎文庫 2007.2) p.109

41) 金蒼生 『わたしの猪飼野—在日二世にとっての祖国と異国』(風媒社 1982.11) pp.102~103

고 있다.

“육지 사람과 제주도 출신자는 사이가 나쁜데, 대정말기 처음에는 육지 사람이 수도 많아, 우리들을 섬 출신이라는 것으로 멸시하고 집단으로 짓궂은 짓과 괴롭히는 행위를 했습니다. 제주놈 대가리 두드리면 술이 나온다 라는 식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는 집단으로 폭행을 가해 술을 사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⁴²⁾

당시 본토 출신자에게서 받은 행위에 대해 제주출신자 김희조씨의 발언을 소개하기 전에 김찬정은 “조선 최대의 섬인 제주도는, 최대의 섬이라고 해도 섬은 섬이다. 섬은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도 본토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고, 제주도도 예외일 수는 없다. 게다가, 제주도는 이조시대에 유형지로 되었기 때문에 본토출신자의 제주도 출신자에 대한 차별감정은, 오키나와도민에 대한 일본본토 사람들의 차별감과 비슷한 감정”⁴³⁾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도와 한반도 본토의 관계를 오키나와와 일본열도와와의 관계와 동일시하면서 섬사람에 대한 차별구조를 일반화시키고 있다. 지나치게 피상적이며 단순한 논리이지만, 제주출신자들은 일본인의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과 재일사회 내의 제주도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중의 차별을 감내해야 했던 사실에 대한 고발임에는 틀림없다.

3-3. ‘현무암기질’의 여자

이상, 4.3사건의 <섬>과 차별과 멸시의 <섬>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 외에, 재일제주인의 작품에는 여성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바위처럼 끄떡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리드해가는 여인들, 콩나물처럼 허약한 남정네들”⁴⁴⁾이라는 표현처럼 여성의 존재가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형상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42) 金贊汀 『異邦人は君ヶ代丸に乗って—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岩波書店 1985.8) pp.86~87

43) 金贊汀 上前書. p.86

44) 元秀 『猪飼野物語—濟州からきた女たち』(草風館 1987.7)의 책날개

제주출신자들의 밀집지역인 이카이노를 무대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개척하고 뿌리내리며 살아가는 제주도출신 재일1세대 어머니들의 모습을 그린 원수일의 『이카이노이야기-제주도에서 온 여자들(猪飼野物語—濟州島からきた女たち)』(草風館 1987.7)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제주도출신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소설만큼 이 작품에는 제주도 여성의 이미지가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강인하고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과정에 사용되고 있는 비유표현에 주목해 보면, 한라산, 현무암, 설문대할망, 용두암과 같은 용어들이 인물묘사 혹은 상황설명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 예를 들어 「운하」의 경우, “제주도 말이 한라산의 현무암처럼 굳어버려 아들의 이름인 히데카즈(英和)를 “혀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히데카스로밖에 발음할 수 없”는 선회 외에도 “설문대할망의 한쪽 다리만큼이나 되는 거대한 굴뚝”, “한라산의 동굴 수만큼 있는 방”, “설문대할망의 방노를 웃돌만큼 내린 호우”⁴⁵⁾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군의 우울」에는 “현무암질의 자궁에서는 홍길동 같은 대장부가 태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용운”⁴⁶⁾, 「재생」에는 “용두암의 일부가 화신한 것으로 여겨질만큼 튼튼한 골격의 계주”, “용두암의 일부가 화신한 듯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던 계주”⁴⁷⁾와 같은 표현이 곳곳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2년 후에 발표한 단편 「발병」(『民濤』6号 1989.2) 속에서도 “제주도여자 특유의 현무암질의 억척스러운 기질을 가진 경애는 일단 자신이 이렇다고 생각하면 아들, 딸이 뭐라 어떻게 말참견하려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⁴⁸⁾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에서 형상화되는 제주도 여성의 이미지는 현무암 그 자체로, 강인하고 거칠고 억척스러운 면모를 부각시킨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수일 자신, “이카이노에서 자란 나의 심상풍경에는 이국에서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풍화되는 일 없는 제주도의 어머니들이 마치 신화적 우상이기라도 한 듯한 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⁴⁹⁾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여성의 현무암적 기질은 일본

45) 元秀一 「運河」, 『猪飼野物語—濟州からきた女たち』(草風館 1987.7) p.6, p.10, p.21

46) 元秀一 「李君の憂鬱」, 上掲書. p.137

47) 元秀一 「再生」, 上掲書 p.202, p.208

48) 元秀一 「発病」(『民濤』6号 1989.2) p.66

49) 元秀一 「あとがき」, 『AVオディセイ』(新幹社 1997.3) p.316

사회에도 쉽게 융화되지 않는 완고함과 경질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늘 집(蔭の棲みか)」(『文学界』1999.11)으로 2000년 상반기 제122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현월은 재일제주인 2세대다. 1998년에 발표한 「무대배우의 고독(舞台役者の孤独)」(『白鴉』2号 1998.4)과 「그늘 집」은 원수일과 마찬가지로 이카이노를 무대로 하고 있으나, 이카이노에 대한 시선은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원수일의 경우 기미가요마루(君が代丸)를 타고 표착한 제주인이 개척한 거리 이카이노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어머니들을 향한 시선에는 애정과 연민이 담겨있다. 그러나 현월에게는 “지독한 곳”, “지독한 인간의 오합지졸”이며 온갖 아비규환의 수라장, 저주받은 땅이 이카이노이다.⁵⁰⁾ 이곳 이카이노에는 일본인에게 시집온 여성이 상당수 있어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혼기가 늦었거나 부인과 사별한 일본 남자를 제주도에 보내 맞선과 결혼식, 신혼여행을 단기간에 처리해 버리는 일을 알선하는 재일한인을 통해 특히 제주도에 시집 온 여성들이 많았다. 당시 제주도는 궁핍해서 “일본에 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랴도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다.”⁵¹⁾ 「무대배우의 고독」의 주인공 노조무의 어머니도 이러한 루트로 이카이노에 온 제주도출신 여성이다. 노조무는 이런 어머니를 “직감력이 나쁘다고 해야 할까 순응력이 부족한 천성 때문에 말과 습관의 벽을 언제까지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었다”⁵²⁾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현무암기질’의 제주 여성의 모습이다.

한편, 이 작품에는 또 하나의 제주여성像이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의 인습이 깊은 마을에서 몸에 익힌 정치권력을, 아장아장 걷는 아들과 공원에 다니던 무렵부터 학부형 사이에 행사해, 습기를 머금은 회유와 하늘을 뚫고나갈 듯한 고압적인 노성에 의해, 또 돈과 시간을 마음껏 쏟아붓는 것으로 육성회, 町자치회를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⁵³⁾야마모토부인과 같은 타입이다. 야마모토부인은 제주도에 경제적인 이유로 회사경영자인 초로의 일본인에게 시집와 갖은 고생을 하면서 방언과 생활습관을 극복하고, 자신을 정부정도만 취급하던 남편마저도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고 나서

50) 玄月 「舞台役者の孤独」 『蔭の棲みか』(文春文庫 2003.1) pp.148~149

51) 玄月 「舞台役者の孤独」 上掲書. p.140

52) 上同

53) 上同

는 오만하다고도 할 수 있는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원수일의 작품에서 다뤄지는 여성들은 이카이노 정착 초기의 세대가 대부분인데 반해, 현월의 경우 재일1세대이긴 하지만, 일본으로 건너간 동기와 시기가 다른 여성들이다. 좀처럼 풍화되지 않는 현무암적 기질로 인해 일본에서의 삶의 패배자가 되어 제주도로 되돌려보내지는 노조무의 어머니, 이와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극복하지만 제주도에서 체득한 ‘정치권력’을 행사하다가 살해당하는 야마모토부인. 결국 이들은 모두 제주받은 땅에서 패배한 자들인 것이다.

제주도 모슬포 출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잦은 불화가 별거에서 이혼 재판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가출을 반복하기도 했던 작가 이양지의 『나비타령(ナビ・タリョン)』(『群像』1982.11)중에도 제주도 출신의 여성에 대한 마이너스 이미지가 보인다. 이혼재판 중인 아버지가 아이코에게 “제주도 여자는 교양이 없어. 결국은 남자를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⁵⁴⁾ 라 말하는 장면이 있다. 딸에게 제주도 여자가 교양이 없고, 남자를 남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소설 전반에 걸쳐 그 근거나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딸에게 비쳐지는 아버지의 모습은 “꺼칠꺼칠하고 단단한 턱, 술독이 오른 커다란 붉은 코,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숨결, 술주정뱅이에다 가난하고 보잘 것 없었던 아버지”⁵⁵⁾다.

이처럼 현무암에 비유되는 제주도 여자는 강인하고 생활력이 강하다는 이미지에서 거칠고 역센 여자, 기가 센 여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유연성이 부족한 여자라는 식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출되고 있다.

3-4. 인습의 질곡을 살아가는 여자

양석일의 『천둥소리』에는 이춘옥이라는 여성을 통해 유교적 인습과 가부장적 사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를 물리면서까지 고통받는 제주여성의 삶이 그려져 있다. 춘옥의 어머니 화심이 17살 나이에 7살 어린 아버지와 맺어진 것처럼 춘옥도 18살에 8살 어린 윤주선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 시어머니 정희 또한 화심, 춘옥과 동일한 운명을 살아가는 여

54) 李良枝 「나비・타리ョン」 『由熙 나비・타리ョン』(講談社文庫 1997.9) p.20

55) 李良枝 「かづきめ」 上掲書. p.147

성이다. 19살의 정희가 시집왔을 때 남편은 8살이었다. 시부모가 조난사고로 사망하자 남편을 자식처럼 기르며 집안을 꾸려왔으나, 정희가 42살이 될 무렵 남편은 이미 2명의 첩을 거닐었고, 현재는 4명으로 늘어난 첩의 집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갖은 고생으로 남편을 돌보고 집안을 일으켜 세웠지만, 남편은 정희를 여자로서 돌아봐주지 않고, 이러한 남편에 대한 원망을 정희는 춘옥에게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희의 맹목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허약하고 오만한 춘옥의 어린 남편 주선은 성장해 갈수록 “아버지를 흉내낸 거만하고 잘난척 하는 태도와 눈빛”으로 변해갔고, 춘옥에게 폭력까지 행사한다. 춘옥은 자신도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다.⁵⁶⁾ 그러나 춘옥은 윤중현의 집 신축공사 인부 고창준과의 만남을 계기로 자주적인 삶을 선택한다.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춘옥의 이국땅에서의 삶은 『피와 뼈(血と骨)』(幻冬舎 1998.2)의 영희를 통해 속편처럼 이어진다. 영희는 12년 전 제주도 대포마을의 윤가로 시집갔지만, 10살 어린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2년 후에 고향을 뛰쳐나와 기시와다(岸和田)의 방적공장에서 일하게 된다. 거기서 고향에 처자가 있는 현장 주임의 아이를 임신하고 공장에서도 쫓겨나 생계를 위해 주점을 경영하며 살아간다. 유교적 인습을 거부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영희의 운명은 행복한 결혼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주도 출신의 폭력과 욕정의 화신 김준평과의 만남은 그녀가 추구하는 삶을 철저히 유린한다.

김석범은 이러한 영희를 “제주도 여성의 전형”으로 본다. “제주도에서는 여자가 일군으로 해녀나 농사일의 노동력의 주체를 이루며 경제권을 쥐고, 남자는 부수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생활풍토”가 있는데다 “유교적 제도 하에서의 남존여비”⁵⁷⁾사상이 강해 춘옥과 영희와 같은 여성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56) “남편과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오로지 일만 하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린 남편의 폭력이 춘옥의 인생관을 바꿨다. 인습에 억매인 여자의 머리 위에 쏟아내리는 술한 폭력, 그것을 견디는 여자들의 운명에 춘옥은 회의적이었다. 다만, 윤가를 나가면 친정에는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이 유교의 법도다.” 梁石日 『雷鳴』(幻冬舎文庫 2007.2) p.196

57) 金石範 「解説—主人公の性格創造と超越性」 『血と骨』(幻冬舎文庫 2001.4) p.471

그렇다면, 여성작가의 작품 속에는 제주도 여성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종추월의 『이카이노 여자 사랑 노래(猪飼野・女・愛・うた)』(ブレーンセンター 1984.8)에는 제주도에 관한 시5편을 담고 있다. 그 중 「제주도의 어머니여」에서 종추월은 검게 그을린 얼굴에서 업보를 짊어진 어머니의 한탄과 눈물을 보고 있다.⁵⁸⁾ 그리고 그 업보는 가난과 역경이 아닌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란 존재로 인한 것이다.

어머니는 누룩을 빚어 술을 담았다/아버지는 술독을 껴안고 술을 마셨다/밥 그릇에 밥을 담지 않아도/밥알이 뜬 막걸리를 그릇에 담았다/여자이자 어머니인 사람은/인간임을 남자에게 우선 양보하지 않으면/하루도 지나가지 않는 그 날의/무사함을 비는 듯 몸을 부비면서/항아리 속에 손을 넣어 술을 푼다⁵⁹⁾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술항아리부터 찾는 남편, 여자라는 사실만으로 인격체로서의 자신을 포기하고 남편을 위해 술을 꾸면서 그날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비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과중, 보리밭기, 보리베기, 모판 준비, 모심기, 제초, 벼베기, 들일은 어머니가 주체이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얼큰하게 취해 있었던 것이었다. 설의 떡도 어머니가 절구방망이를 가지고, 아버지는 손을 몰로 적어서 절구통 속의 떡을 뒤집고 있었”⁶⁰⁾다고 하는 것처럼, 종추월은 ‘일 안하는 남자, 일 잘하는 여자’의 전형인 제주출신의 부모에게서 발견한다.

단편소설 「이카이노 태평 안경(猪飼野のんき眼鏡)」(「民涛」창간호 1987. 11)의 순자는 하루 세끼 밥먹는 “인간의 당연한 관습”을 유지할 수 없는 주부는 주부실격자로 치부되는 이카이노에서⁶¹⁾ 남편의 잦은 전직과 술과 노름, 이로 인해 계속되는 경제적 궁핍 속에서도 꾀꾀하게 삼남매를 키우며 살아가는 여성이다. 대낮이든 한밤중이든 때를 가리지 않고 거리 한복

58) “부복하는 어머니여/합장하는 어머니여/업보를 짊어진 건가/바닷바람에 그을린/땅에 그을린/살에 달라붙은/팔자의 표시/아이고! 팔자야/아이고 팔자야/다 나온 눈물과/다 나온 울음 소리 아이고/빈 껍질의/투명함” 종추월 『이카이노 여자 사랑 노래(猪飼野・女・愛・うた)』(ブレーンセンター 1984.8) p.80

59) 宗秋月 『猪飼野・女・愛・うた』(ブレーンセンター 1984.8) pp.62~63

60) 宗秋月 『サランへ・愛してます』(影書房 1987.7) p.149

61) 宗秋月 「猪飼野のんき眼鏡」 인용은 磯貝治郎・黒古一夫編『<在日>文学全集 16 作品集 II』(勉誠出版 2006.6)에 의함. p.13

판에서 폭력을 가해오는 남편에 대해, 순자는 자신의 수치나 아픔보다는 “광란하는 남편의 아픔에 못이겨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부여잡고 등 뒤에서 통곡”한다.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순자는 자신의 운명은 어머니에서 자신에게로, 그리고 어린 딸자식에게로 되물림되는 “인과율같은 재일의 업”⁶²⁾이라 생각하며 남편의 횡포까지도 모성으로서 감싸안으려한다. 이러한 여성의 모습은 「불꽃(華火)」(『民濤』10호 1990.3)의 경자에게도 나타난다. “조선여자의 업, 유교에 지배당한 여자의 업”, 이러한 여자의 “수난의 기억”⁶³⁾을 증오하면서도 그 자식들은 또다시 카르마(업)를 답습해 가는 것이다.

한편, 김창생은 종추월과는 대조적인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 『나의 이카이노』에서 김창생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이국땅에서 살아온 일생을 돌아보고 뒤늦게 그녀를 이해하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아형성기에 “왜 조선인인가. 왜 빈핍한가. 왜 배우질 못했는가, 거칠고 포악한가. 왜 금세 서로 소리질러대는 걸까”⁶⁴⁾하는 반발심으로 시작한 그녀는 제주도 방언 섞인 한국말을 하는 어머니를 증오하고 경멸했다. 하지만 그녀의 증오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불행한 어머니의 삶 자체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어머니와 같은 삶은 결코 살지 않겠다던 그녀도 결혼과 함께 그 업을 고스란히 이어받았고, 자신의 딸에게만은 되물림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한다.⁶⁵⁾

재일제주인의 작품 속에서 제주도 남자가 주인공으로 다뤄지는 예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이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인생을 탕진하거나, 남존여비의 유교적 폐습에 젖어 여성의 삶을 유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종추월은 재일사회에서는 “제주도 출신 남자는 ‘일 하지 않는 남자’로서, 근면하지 않는 남자의 대명사”이고, 일 잘하는 여자를 ‘제주도 여자’라 부른다고 한다.⁶⁶⁾ 제주도의 설문대할망, 고양부 삼성신화 등을 동화로 각색한 『이야기 할망(おはなしハルマンさま)』(新幹社 1996.8)의

62) 宗秋月 上掲書. p.15

63) 宗秋月 「華火」(『民濤』10号 1990.3) p.68

64) 金蒼生『わたしの猪飼野—在日二世にとっての祖国と異国』(風媒社 1982.11) p.36

65) 자신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던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모습은 작품집 『빨간 열매(赤い実)』(行路社 1995.6)에 수록된 「빨간 열매(赤い実)」, 「세 자매(三姉妹)」, 「피크닉(ピクニック)」에 잘 나타나고 있다.

66) 宗秋月 『サランへ・愛してます』(影書房 1987.7) p.148

머리말에서 아동문학작가 원정미는 제주도의 삼다를 바람과 돌, 그리고 ‘일 잘하는 여자’로 소개하고 있다.⁶⁷⁾ 이처럼 제일한인사회에서 제주도의 삼다 중 여자는 ‘일 잘하는 여자’로 변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여자’는 현무암기질의 억척스러운 여자, 유연성이 부족한 여자, 유교적 인습과 가부장적 폐단을 업보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자로 형상화되고, 이와는 상대적으로 제주도 남자는 ‘일 안하는 남자’,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남자로 그려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작품 속에서 그 존재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이상, 제일제주인문학 속에 형상화된 제주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인, 제일제주인을 막론하고 일본이라는 <섬>에서 바라보는 제주 <섬>은 제주자연에 대한 시선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이미지로 점철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역사소설에는 제주 <섬>이 새로운 형태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섬>과 바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줌과 동시에 독립왕국을 자랑하던 탐라가 주변강국에 복속되면서 상실한 제주인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4. <섬>과 바다에 대한 새로운 비전

현길언은 “한국인의 사유로서 바다는 단절의 공간이고 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색적인 땅”⁶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때문에 섬은 ‘폐쇄된 공간’이고, 바다는 섬을 외부세계와 차단시키는 장애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제주도라고 한다.⁶⁹⁾ 이러한 특성은 제주문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설문대할망설화의 육지와 연결시켜주는 다리(橋) 건설 약속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스토리를 통해 바다를 거부하고 육지를 갈망하는 제주인의 욕망이 표출되고 있고, 제주민요 또한 바다는 재난, 재해, 고통, 시련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문학적 상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

67) 元靜美 『おはなしハルマンさまー濟州島の昔ばなし』(新幹社 1996.8) p.3

68) 현길언 『제주문화론』(탐라목석원 2001.6) p.229

69) 현길언 上掲書 p.231

로 작용해, 제주도는 실제 섬이면서도 <섬>과 바다에 대한 설화가 적으며, 현대문학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주변부의 갇힌 공간으로서의 <섬>으로 형상화되고 있다.⁷⁰⁾

이러한 단절, 격리, 고립의 이미지가 강한 제주인의 <섬>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작가가 있다. 역사소설가 기타카와 겐조(北川謙三)와 재일제주인작가 김중명이다. 이 두 작가의 소설은 일본열도에서 산출하고 있는 제주<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라 할 수 있다.

먼저, 기타카와 겐조의 『파왕의 때(波王の秋)』(集英社 1996.9)는 남북조시대를 배경으로 바다를 무대로 펼쳐지는 하드 보일드(hard boiled) 역사소설이다. 규슈일대에서 통합된 세력을 가진 남조세력과 막부군의 격심한 경합 속에, 원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원조를 구해서 규슈로 잠입한 자가 있었다. 그는 제주도를 본거지로 하지만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수군을 통솔하고 있는 나미노오오가 보낸 사자 류치쇼이다. 류치쇼의 활약으로 남조세력의 일파인 가미마츠라토(上松浦党)의 가이레이노미야에게 협력을 약속받는다. 아래 인용은 류치쇼가 가이레이노미야를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일부분이다.

“나미노오오는 원나라 말도 고려 말도 먼 남국의 말도 그리고 이 나라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는, 대대로 제주도 도민의 것입니다.”

“과연 제주도에 귀인의 피가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혹 그것인가?”

“저 자신은 귀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주도 도민이라는 심정이 있을 뿐입니다. 가이레이노미야님은 제주도에 대해 깊은 곳까지 아시고 계시죠?”

“원래 고려의 섬이면서, 원 왕조의 영토로 되어버렸다. 그로 인해 많은 비극도 발생했다. 원나라인 이상, 원 왕조의 지배를 받지만, 고려도 옛날의 지배층을 남겨 원 왕조의 눈을 속이면서 저 섬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 하고 있다. 즉, 원과 고려 양쪽으로부터 오랫동안 지배를 받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실로 그대로입니다. 나미노오오는 그 때문에 원과도 고려와도 계속 싸워온 것입니다. 나미노오오뿐 아니라 그 아버지도, 형제들도”⁷¹⁾

70) 현길인 上掲書. pp.235~239

71) 北川謙三 『波王の秋』(集英社文庫 1998.11) pp.92~93

이어서 가이레이노미야는 나미노오오가 원나라와 맞서 싸우는 목적이 원과 고려에게 지배를 받아온 제주도를 원에게서 되찾아 고려에 복속시키기 위한 것이냐고 묻는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피가 흐르는 나미노오오에게는 “제주도를 단지 제주도로 하고 싶다. 원으로부터도 고려로부터도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의 나라와 같은 것으로 하고 싶다”⁷²⁾는 일념 뿐이다. 제주도를 어느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나미노오오의 집념과 원나라로부터의 두 차례의 침공을 받은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거대한 원의 세력은 공통의 적이다. 이렇게 해서 나미노오오의 수군과 가미마츠라토의 수군을 이끌 수령으로 고시로가 추대되고, 고시로는 파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파왕의 때』는 무대를 육지가 아닌 바다로 옮겨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가 계속되어온 아시아의 역사에 반기를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은 원이라는 공통의 적을 상대로 두 수군이 연합하여 일본의 원나라로부터의 세 번째 침공을 사전에 막는다는 설정에 그치고 있어, 이는 결국 고려로부터 독립국을 지향해 온 제주도의 역사가 원나라의 침입을 막아낸 일본의 역사에 편입되어 재구성되고 있는 듯한 묘한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김중명의 역사소설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바다의 민중』과 『항몽의 이름-삼별초 탐라전기』이다. 『바다의 민중』에서 표제가 의미하는 바다의 민중이란 신라의 왕족과 호족으로부터 해도인(海島人)이라 불린 피차별민이다. 그들은 대부분 제주도 및 다도해부근 출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나라 연해부에 신라방이라는 근거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 바다의 백성을 통솔하며 해양교역을 좌지우지한 인물이 청해진대사 장보고이다. 그는 신라왕을 능가하는 재력과 군사력으로 해상왕국을 건설했는데, 그가 추구하는 이상왕국은 국경, 영토, 국가라는 개념을 갖지 않으며, 상하수직의 관계를 부정하는 수평의식에 근거하여 성립된 공동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실체와 허상을 파헤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중명은 『일본서기』등의 고대문헌에 나타난 제주인은 “만리의 파도를 뛰어넘어 멀리 일본정부와 직접 교섭을 가”지기도 한 ‘자립자존의 백성’이었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72) 北川謙三 上掲書. p.262

육지의 인간에게 있어 바다는 장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닷사람에게 있어 바다는 길이요 생활의 장이다. 사방을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바닷사람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다. 역사의 정식 무대에 서는 일은 없어도, 남겨진 사료의 한 귀퉁이에 긍지 높은 제주인의 활약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⁷³⁾

자유로이 해상을 누비며 활약했던 고대 제주인이 주변의 강대국에 복속되면서부터는 섬과 바다를 닫힌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근거에는 조선 인조왕 7년(1629), 계속되는 흉년과 기근, 조세부담 증가로 척박한 제주섬을 벗어나려는 자가 늘자 출국금지령을 내려 제주인을 섬에 가두어두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이 때 바다는 ‘섬을 막아놓은 철조망’이었고, 또한 왜구와 해적의 잦은 출몰과 침탈에 시달려 온 제주인에게 있어 자연적으로 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다.⁷⁴⁾ 4.3사건관련 서적을 번역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도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제주인이 조개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현실에 대해 김중명은 일찍이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달한 기상을 가진 제주인의 모습을 문학작품을 통해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2006년 제30회 역사문학상을 수상한 『항몽의 오름』에 이르러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항몽의 오름』은 1231년부터 시작된 고려의 대몽항쟁과 1273년 5월 삼별초가 탐라에서 함락됨으로 원의 지배를 받게 된 제주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본거지를 옮기며 마지막 거점지인 제주도 항과두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삼별초의 활약은 섬과 바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다.

삼별초는 “오랜동안 성주를 왕으로 모시는 독립국”이었고, 신라말에는 “일본에서 대륙의 장강에 이르는 관대한 해역을 제 집 마당처럼 왕래했다는 청해진대사 장보고”가 근거지로 삼기도 했던 탐라⁷⁵⁾를 그들의 새 본거지로 정하고 하귀포에 들어온다. 그러나 여몽연합군의 추격은 계속되고, 위기에 처한 삼별초는 남해를 거점으로 하는 해적선단을 아군으로 포

73) 金重明 『濟州島四・三事件 第一卷 朝鮮解放から四・三前夜まで』(新幹社 1994.4) p.549

74) 현길인 『제주문화론』(탐라목석원 2001.6) p.53 참조

75) 金中明 『抗蒙の丘—三別抄耽羅戰記』(新人物往來社 2006.6) p.16

섭하고, 일본에도 동맹을 요청하는 국서를 보내 공통의 적인 원과 맞서줄 것을 요청하지만 원군파병은 거절당하고 만다. 결국 항과두리는 여몽연합군에 의해 낙성되고, 김통정의 자결시체가 붉은 오름에서 발견되는 등 삼별초의 항쟁도 막을 내린다. 이 때 마라도 출신인 자리라는 여성의 길안 내로 제주도를 빠져나가는 일행이 있었다. 삼별초가 단행한 노비해방으로 노비신분에서 벗어나 좌별초 병사로 들어와 김통정장군 휘하의 부장군이 된 최지현이라는 인물과 관기였으나 현재는 의관을 돕고 있는 옥녀, 삼별초의 부관 서우섭과 자리 등을 포함한 14명이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고려도, 몽고가 지배하는 대륙도, 일본도 아닌 ‘바다인의 나라’ 류큐(琉球)다.

기타카와와 김중명의 소설은 비슷한 시대설정과 육지가 아닌 바다를 생활공간으로 하는 바다사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제주라는 <섬>과 제주인에 대한 시각도 유사하다. 제주인 나미노오오와 청해진대사 장보고 그리고 삼별초, 이들은 복속과 피복속, 지배와 피지배라는 수직관계, 국가와 영토라는 개념자체를 거부하고 자유로워지고자 했다. 삼별초의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항쟁으로 42년간 계속되어온 대몽항쟁이 실패로 끝난 후 살아남은 최지현 일행이 류큐를 향해 출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섬>을 향한 출발이다. 김중명이 바다와 <섬>을 무대로 한 소설을 통해 환기시키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복속받지 않는 독립왕국 탐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육지 사람에게 있어 바다는 장애물일지 모르지만, 바닷사람에게 있어 바다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길과 같은 것”⁷⁶⁾으로 여기는, 바다를 삶의 무대로 하여 살아가는 강인하고 자주적이며 진취적인 바다인으로서의 제주인의 모습이다.

5. 나오며

이상, 제주 <섬>에 대한 시각을 일본의 근·현대문학텍스트를 통해 살펴해보았다. 일본인들이 바라 본 제주도는 근대화 이후 미개국으로 치부된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크게 상이하지 않으나, 한반도보다 더욱 미

76) 金中明 上掲書. p.37

개하고, 더욱 나태태만하며 폭동과 살상을 일삼는 흉흉한 섬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패전을 전후한 시기에는 일본본토 사수를 위한 최후의 방어지로서,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는 관광의 <섬>으로서의 이미지가 중심이었다. 그리고 재일제주인의 문학작품이 형상화하는 제주도는 4.3사건의 <섬>, 차별과 멸시의 <섬>, ‘현무암기질’의 여자가 많은 <섬>, 유교적 인습이 강한 <섬>등으로 나타났다.

일본인과 재일제주인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한라산, 삼성신화, 삼다, 삼무, 돌하르방, 감귤과 같은 자연과 지역적 특색,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4.3무장봉기와 양민학살, 기미가요마루, 이카이노 등이 제주도를 형상화하는 주된 이미지였다. 그러나 양자의 시각의 차이는 일본인의 경우 <섬>의 표층적인 부분에 집중된 것이었고, 재일제주인은 <섬>사람으로서의 생활 내부에서 생산되는 이미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동일한 이미지 형상화라 보기 어렵다.

한편 제주에 대한 형상화 양태를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고찰했지만, 동일한 이미지의 재생산처럼 보이는 가운데에도 제주도의 이미지는 특히 재일제주인 문학 속에서 변용의 요소가 발견되었다. 먼저, ‘정어리도 생선이나 제주도 새끼도 인간이냐’는 제주인에 대한 차별적 언설이 재일사회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정어리가 생선이나 조선인이 인간이냐’라는 재일한인에 대한 일본사회의 차별적 언설로서 변형되어 유통되고 있었다.

그리고 재일제주인 작품에 나타난 특징의 하나는 제주도 여성의 삶의 행태가 크게 부각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여기에도 변용이 보인다. 제주도는 곳곳에 신당이 있고, 그 68%가 여신을 모시고 있으며, 신화의 주인공도 대부분 여신이며, 이러한 신앙 및 신화·설화 등에서 그려지는 여성은 주체적인 삶과 행동을 추구하는 여성이다.⁷⁷⁾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집안일은 물론이고 바다와 들에서 열심히 일하는 제주여성의 모습이, 재일제주인 문학 속에서는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거칠고 역세다는 의미를 내포한 ‘현무암기질’의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생활력이 강한 제주도 여성에 반해 제주도 남성은 무력한 존재, 여성의 삶을 이중삼중으로 힘겹게 하는 존재였다. 일하지 않는, 근면하지 않

77)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휴머니스트 2005.7) p.247 참조

는 남자의 대명사로 제주도 남자가 꼽히는 재일사회 속에서 여자가 많은 <섬>이라 일컬어졌던 고래의 언설은 ‘일 잘하는 여자’의 <섬>으로 삼다의 요소를 변형시키고 있었다.

일본이라는 <섬>에서 생산, 소비되어지고 있는 이미지는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마이너스 이미지들이었다. 그리고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난 이후의 마이너스 이미지 형성의 주체는 재일제주인들 자신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탐라라는 독립왕국이 해체되는 시기부터 시작된 한반도본토와 탐라(제주도)의 정치구도, 일제의 식민지 지배 후부터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조국 한반도, 제주도, 구식민지종주국 일본이라는 삼자의 정치구도 속에서 축적되어온 차별과 억압에 대한 피드백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제주인의 엄청난 피 위에 성립한 국가”⁷⁸⁾ 대한민국, 그 최남단에 ‘관광의 섬’으로 부상해 있는 제주도를 표방하는 새로운 문구들이 생겨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 ‘세계자연유산의 섬’. 이러한 표현들은 분명 제주도 내에서 제주도에 대한 자화상으로 발신하고 있는 이미지들이다. 스스로가 자화상의 주체가 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섬>이라는 것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 현재에도 문학텍스트 속에서 생산·유통·소비되고 있는 마이너스 이미지에 대한 충분한 고찰없이 진정한 자화상 산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 윤석산 「‘섬 문학’에 나타나는 공간구조와 의식의 지향성」(제주국제협의회·제주시편『바다와 섬, 문학과 인간』오름 1999.8) pp.165~167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휴머니스트 2005.7) p.247
 현길인 『제주문화론』(탐라목석원 2001.6) p.53, p.229, p.231, pp.235~239
 金贊汀 『異邦人は君ヶ代丸に乗って—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岩波書店 1985.8) pp.86~87
 吳億鏞 「韓国の観光マーケティング戦略—『観光ビジョン21』を中心に」(『立命館経営学』42卷4号 2003.11) pp.129~152
 林浩治 『在日朝鮮人日本語文学』(新幹社 1991.7) p.121

78) 金重明 『濟州島四・三事件 第一卷 朝鮮解放から四・三前夜まで』(新幹社 1994.4) p.549

Abstract

**A study on <Island> as a literary representation
<Island>
- Japan in modern and contemporary literature 'Jeju Island' -**

So, Myung-Sun

The study modern and contemporary Japanese literature as the text of space 'Jeju Island' on the overall goal of research. Jeju Island is modern Japanese literature that <Island> How would you have representation? The research area and Jeju <Island> and how that has been the embodiment. How to keep that process would have worked with the power of knowledge. Jeju <Island> is the image of the transformation? If so, what is that element. And what is it if there is something that doesn't change in origin? Departing from problems such as awareness. Jeju <Island> perspective of modern and contemporary Japanese literature in that pursuit, the Japanese archipelago <Island> from the periphery of the Korean peninsula, Jeju <Island> perspective to ascertain the views will be at the same time, Jeju <Island> to explore literary and through the heart, the Japanese bombardment of modern and contemporary literature to reverse will work.

주제어 : 섬, 제주도, 일본근·현대문학, 재일제주인

Key words : island, Jeju Island, morden and contemporary literature of Japan, Jeju people in Japan

투고일 : 2008년 11월 05일

심사일 : 2008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28일